

지방건축사의 위대한 승리를 기원하며

Wishing the great victory of a local architect

글. 홍성용 · 본지 편집국장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오늘날만큼 건축에 있어서는 중앙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벼슬을 한 양반들의 집이 전부 서울(한양)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조시대의 유명한 권력자 류성룡은 안동지방에 집을 두고, 관직에 있을 때만 한양에 있었습니다. 퇴계 이항 역시 한양에 살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관료들은 관직을 그만두면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고, 후손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록 우리나라가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른 건축 양식과 형식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의 색채가 있던 건축적 지방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런 구분이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해방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중앙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었습니다. 정치도, 권력도, 산업도, 그리고 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고도 산업화의 집적성과 맞물려 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건축 또한 마찬가지여서, 서울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소문을 타고 지방에 재현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로는 무단 복제가 되기도 하고, 건축주가 복사해서 지방 여기저기에 짓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의 가치와 선망의 대상으로 등극하면서 도시 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 언저리에서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은 없습니다.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건축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이랑 똑같은 곳을 왜 가냐고.. 아마도 그래서 제주나 전라남도 같은 서울과 다른 곳들을 여행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

습니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떠나죠. 건축과 여행은 상관 없을 것 같지만, 건축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여행의 선택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세계적 일본인 건축사 안도 다다오, 스위스 건축사 마리오 보타, 포르투갈 건축사 알바로 시자 등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적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작품에 표현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리차드 앤 바우어 건축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을 건축적으로 표현해서 수 많은 상과 공공 도서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 각각의 장소마다 명확하고 선명한 지방성을 드러냅니다.

저희 건축사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의 각 지방들을 중심으로 매호 특집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 매체들은 서울 중심의 몇몇 그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방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작품이 소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들이 전국적 지명도가 있고, 상업적 인지도가 있지 않지만 저희 건축사지는 이런 숨은 건축사들을 발굴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매번 작품수가 부족해서, 어렵게 섭외하고 찾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대학도 많고, 규모도 커서 가장 많은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수 많은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쉽다는 점은 종종 하지만 특정 지방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미국 건축사가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라는 마을에 설계한 도서관은 그 지역의 수도원을 모티브로 해서 당시 AIA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신의 디자인 언어와 지방적 특성을 녹여낸 수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민의 산출물인 건축작품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수한 지방 건축사들의 탄생을 기원해 봅니다.